

## 맨땅에 헤딩하듯



윤다원

-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재학 중
- 2022년도 5급 공채(행정) 재경직 합격

### I. 들어가며

수험생 시절, 우연히 읽어본 모의고사 채점평에서 저와 비슷한 수험생활을 보내온 채점자의 이야기가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수기지만, 저와 비슷한 수험생활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II. 수험기간 전반

#### 1. 초시(2019년 7월 ~ 2020년 6월)

대학교 2학년에 들어 진로 탐색을 하던 중 가족에게 행정고시에 도전해볼 것을 추천받았습니다. 가족 중 사무관이 있었기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있을 1차 시험에 응시해보기 위해 2019년도 하반기에는 토익과 한국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에 응시해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2차 시험을 위한 별도의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 과목 중 헌법 과목은 양이 방대할 것이라 생각되어 금동흙 헌법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다만, 학기와 병행하다보니 자꾸 강의가 밀리고 열심히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헌법 시험이 쉽게 나와 합격컷은 넘겼

지만, 종강하고 압축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종강 후 피셋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강사의 기본, 심화, 모강을 인터넷으로 수강했습니다. 저는 피셋형 인간이 아닌 지라, 65점의 점수를 받고 떨어졌습니다. 당시의 합격컷은 75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1차 시험이 코로나로 인해 한 달 가량 미뤄졌는데 피셋 공부를 삼개월씩이나 하는 것은 낭비라 생각하여 경제학 강의를 결제하여 수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재학하되, 고시와 관련된 학교의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수업을 수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기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가 근처의 스터디카페에서 학교 수업을 듣고 남는 시간은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 2. 재시(2020년 7월 ~ 2021년 6월)

2020년 7월부터 신림 고시촌에서 생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시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020년 2학기과 21년 1학기는 휴학했습니다. 7월부터 학원을 등록하여 본격적인 2차 과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1차 기본강의를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학원 실강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자취방에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모의고사만 응시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공부에 집중을 잘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법, 행정학의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 원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학까지 수강하고 1월부터는 피셋 공부를 했습니다. 1차시험

은 70점 가량의 점수를 받고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큰 점수차로 떨어져 상실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1년만 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3순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3순환 시기에는 대면 강의를 진행되어 매일 수업에 참여하고 모의고사를 응시했습니다. 행정법과 행정학 공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모의고사에서 백지를 내고 오기 일쑤였지만 최소한 당일과 다음날 시험범위의 학설과 판례는 전부 다 외우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학도 가장 기본적인 학자와 이론을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한 공부였지만 이시기에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1차 시험 합불 여부와 무관히 이 시기의 고시촌을 꼭 경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떨어진 제가 끼어 공부를 하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기죽고 힘들 수 있지만 실력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답안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삼시(2021년 7월 ~ 2022년 6월)

이 시기부터 답안작성에 집중된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법, 행정학의 경우 매일 완성된 답안을 작성해보고, 남는 시간에는 암기를 보충하거나 스스로 목차를 잡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경제학, 재정학의 경우는 수강하지 않은 타강사의 문제집과 작년도 모의고사를 풀어보며 학습했습니다. 해당시기 별도의 강의(1순환, 2순환)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3순환 시기를 겪으니 공부 방향이 잡혀 이시기에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12월부터

는 피셋에 집중하였습니다. 자취방 근처의 독서실을 등록하여 혼자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푸는 방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자료해석은 실감에 참여하기도 하며 대비했습니다. 앞서 학습해둔 풀이방식이 체화되어 이 시기에 1차 공부를 가장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장 편했던 것 같습니다. 69.16점 컷에 74.16점이라는 안정적인 점수를 받고 마음 편히 2차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말부터는 2차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행정학 스테디에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 Ⅲ. 과목별 공부방법

#### 1. 제1차시험 과목

##### (1) 헌법

저는 초시와 재시때 금동흙 헌법 기본 강의를 들었습니다. 양이 많고, 초시생의 경우는 행정법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미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기본 강의가 진행되는 여로부터 진도를 조금씩, 천천히 따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그 양이 과도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삼시 때는 주로 독학하되, 최신 판례를 학습하기 위해 윈터 특강을 인터넷으로 수강했습니다. 교재로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모든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1차가 가까워졌을 때는 헌법 모의고사를 한회차~두회차씩 풀었습니다. 기출 경향으로 보건대, 시험이 임박하고 본인의 학습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기본을 다지기 보다 윈터특강을 통해 최신 판례를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매주 출제되는 전국모

의고사의 헌법 문제를 꼭 리뷰하시길 추천합니다. 최신 판례는 물론이고 기초적인 문제도 섞여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기관을 불문하고 잘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언어논리

주로 양치기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입시, 리트, 미트, 수능비문학은 행정고시와 출제경향이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강사의 3-4개년 치 모의고사를 다 풀고 오답 원인을 확인하는 방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오답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나면 채점을 하고, 푼 문제 중 오답의 개수와 풀지 않은 문제의 개수를 표기합니다. 푼 문제의 오답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용상 원인이 아닌, 풀이 방식상, 시험 운용상 오류를 찾습니다(예: 지문 초반 부분을 열심히 읽지 않음. 선지를 잘못 이해함. 제시문을 읽지 않고 넘김 등). 풀지 않은 문제의 개수가 너무 많았다면 그 원인도 함께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취약한 부분(예: 과학 지문, 논리 퀴즈 등)을 확인하고 시험장에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논리 퀴즈에서 시간을 줄여야 한다 생각하여 논리퀴즈 파트를 맨 뒤로 미루었고, 최소 시간을 정해 놓고 이 시간 내에 풀지 못했다면 과감하게 넘어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내용상 오답 정리도 간단하게 해주었지만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제의 경우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특성상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전 이전 모의고사들의 '오답 원인'을

검토하고 '이번에는 해당 부분을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른 방식으로 운용해봐야지' 다짐한 뒤 모의고사를 풀니다. 최근 기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된 지 오래된 기출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보다 모의고사와 최근 기출을 통해 시험장에서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 자료해석

강사의 스킬을 강의를 통해 듣고, 모의고사를 통해 체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강사의 3~4개년 모의고사를 풀며 연습했습니다. 초시 때는 계산 연습에 치중했으나 재시 때는 계산 자체를 빨리 하기보다 역발상을 통해 풀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특히나 초시 시절에는 계산을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이 급해 끝까지 계산을 완수하지 않고 얼추 끝낸 뒤 답을 고르는 방식의 풀이를 주로 했습니다. 이러한 풀이방식이 1차탈이라는 고배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끝까지 완수하되 계산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역발상을 체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나 이런 역발상식 문제 풀이는 비타민 같은 단순 계산 문제집을 통해 절대 기를 수 없으므로 모의고사 양치기를 통해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시 문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국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계산이 과도하게 복잡한 경우는 별도로 오답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복습하면서 저 자신만의 습관을 분석하고 전

락을 세웠습니다.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나면 채점을 하고, 푼 문제 중 오답의 개수와 풀지 않은 문제의 개수, 백분위를 확인합니다. 내용적 측면이 아닌 오답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이 자주 하는 실수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 계산 실수, 조건 읽지 않고 넘김, 풀지 말고 넘어가야할 선지 건드림 등). 풀지 않은 문제의 개수가 비교적 많은 경우 시간이 낭비된 부분도 확인합니다. 다음 모의고사를 풀기 전 이렇게 분석된 패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된 풀이방식, 운용방식을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과목 특성 상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쟁겨가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양치기를 통해 문제를 푸는 감각을 늘리고, 답안지의 정답률을 반드시 확인해서 자신이 쓸데없는 문제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모두가 맞추는 문제를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험장에서는 어떤 형식의 문제가 나올지 모르므로, 최소한 강사 모의고사의 경우는 모든 문제의 풀이 방법 및 접근법을 숙지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상황판단은 언어논리, 자료해석과 달리 내용상 오답정리까지 했습니다. 즉, 모의고사를 푼 뒤, 채점을 하고 틀린 이유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문제에 대한 풀이방법도 정리 및 암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적당한 상황판단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판단은 강사마다 가지고 있는 특기가 다르고, 수험생 개인별 접근 방법도 다르므로 다양한 강

사의 후기를 읽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수강하시길 추천합니다.

## 2. 제2차시험 과목

### (1) 경제학

챕터 별로 묶어서 어려운 문제까지 한꺼번에 보는 법을 추천합니다. 예컨대, 게임이론 부분의 1순환을 하고 있다면 1순환 주교재의 게임이론 문제는 물론이고, 2순환 교재의 게임이론 부분, 기출(주로 외시, 행시 기출)을 함께 풉니다. 이 수준의 문제들은 당연히 자신의 힘으로 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풀이를 읽어보고 이해가 된다면 넘어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은 모두 별도의 표시를 해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2순환 경제학으로 넘어가면 주교재와 함께 3순환의 교재와 기출(주로 입시, 행시의 고난도 기출)을 풉니다. 3순환이 시작되면 3순환 주교재와 함께 기출, 복사집의 3순환 모의고사 문제들을 풉니다. 경제학 강의가 종강한 기간(행정법 등 타 과목 기간)에는 앞서 스스로 풀지 못해 표시해둔 문제들을 반복하여 공부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챕터별로 문제를 푸는 것과 당장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표시해두고 재빠르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표시만 해두고 빠르게 넘어가는 이유는 나중에 이해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몇 시간을 붙잡고 있어도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챕터별로 묶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기본적인 풀이 방식을 빠르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별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암기

하는 것 이상의 풀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 (2) 행정법

가장 갈피를 잡기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고시 초반까지만 해도 모의고사를 보러 가서 백지만 내곤 했습니다.

경제학과 유사하게 ‘진도별로’ 다양한 사례집과 3순환 모의고사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보통 150점 정도의 분량의 문제를 직접 풀고, 암기가 부족한 부분은 핸드북을 토대로 보충했습니다. 특별히 부족하다 느껴지는 부분만 백지암기했습니다. 손목이 아파 더 쓰기 어려울 경우 목차와 목차 안의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적는 방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법은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지만, 암기와 답안 쓰기가 반드시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도별로 묶어서 답안 쓰는 연습을 통해 암기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듯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행정법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는 논리구조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히 암기만으로 연습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답안을 써봐야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안 쓰는 연습을 최대한 일찍, 최대한 많이 하시길 추천합니다.

초시생의 경우 1순환, 2순환 기간 중 정선균, 류준세 사례집을 진도별로 풀고 부족할 경우 복사집에서 1~2순환 모의고사를 함께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3순환 기간 중에는 각론 중심으로 암기를 보충하고 3순환 모의고사를 모두 풀어야 합니다. 초시생의 경우에는 이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므로 고난이

도인 김향기 사례집은 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시생 이상의 경우 김향기 사례집을 통해 스스로 논리구조를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3) 행정학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과락 역시 쉽게 나오지 않는 과목이라고들 합니다. 자신감 있게 답안 쓰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서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인 다양한 모의고사, 행시, 입시 기출을 같은 날 풀어보는 양치기를 통해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9월~11월 기간에는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을 펴 놓고, 목차를 쓴 뒤, 목차의 하위목차 및 세부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2차 기간(3월~6월)에는 시간을 재며 50점 분량의 답안을 완성하는 연습을 하루 두 번 하고, 남은 시간에는 9~11월 기간과 같이 키워드 중심으로 답안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행정학은 논문 과목이기 때문에 스테디를 들어가는 것 또한 추천합니다. 최대한 여러 사람의 답안을 읽고 좋은 부분은 베끼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행정학은 키워드에 충실한 답안 만들기를 우선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노트를 만들고 수시로 가지고 다니며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정학은 행정법과 달리 암기를 위한 핸드북이 시중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촌 서점에서 판매하는 행정학 핸드북이 있으나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키워드 노트를 완벽하게 만들고자 할 경우 시간

이 너무 많이 들어 주객전도되는 꼴이므로 여백을 많이 둔 채 본인이 모르는 것,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을 그때그때 채워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목차를 빠르게 구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목차의 틀을 알아 두시고, 다른 목차로 같은 주제를 서술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예: 시간 목차 서술, 주제 목차 서술, 가치 목차 서술 등).

### (4) 재정학

경제학과 유사하게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다만, 약술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저는 재정학 암기를 위한 암기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암기노트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래프와 정의, 정책의 장단점 등을 적어 놓았습니다. 행정학은 암기노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하지만, 재정학은 최근 들어 정의 등과 같은 약술 파트는 약해지고 수리적 계산이 강조되는 만큼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질의 문제집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 굳이 주제별로 모아 푸는 방식의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잘 풀지 못한 문제들을 표시해두었다가 반복 학습하는 방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 (5) 통계학

초시 때 1순환을 수강한 이후로 손을 놓고 있다 2차 시험을 거의 앞두고서야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통계가 익숙하지 않다면 틈틈이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선택과목은 폐지될 예정이고, 지나친 고난이도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점수가 크게 낮게 나와도 가중치가 절반밖에 되

지 않아 치명적이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크게 비중을 두어 학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번 시험에서 평이했던 출제 난이도에 비해 통계학 점수를 30점대 중후반 정도로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다만, 경제학 출제 난이도가 높아 대부분의 합불 여부가 경제학에서 결정되었고, 다른 재경직 수험생에 비해 행정학 점수를 잘 받아 큰 타격 없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통계학에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길 추천합니다.

재정학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문제집이 많지 않아 굳이 주제별로 모아서 푸는 방식으로 학습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둔 시기에 기본, 심화 문제집을 반복하여 풀이하고, 기본적인 수식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학습했습니다.

#### IV. 마무리하며 - 기타

##### 1. 건강관리

수험생활 중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도림천을 30-40분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해주었고 이마저도 3순환이 시작되자 바빠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하루 한 시간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니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험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보다는 생활 패턴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면 시간과 기상시간, 식사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셋기간과 3순환기간, 그 외의 기간의 생활 패턴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저는 보통 아침 7시 기상, 12시 반 취침(피

셋기간과 3순환기간에는 기상시간이 조금 빨라지고 취침시간은 동일), 오전 11시 30분 점심, 오후 5시 30분 저녁 식사의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유지하면 큰 체력 변화, 컨디션 저조없이 일정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 슬럼프 극복

저를 포함하여 단기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시험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도 절대 쉬지 않고 일정을 지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1차탈 확인 후에도 3순환 강의에 매일 참석하여 모의고사를 풀고, 7월~10월의 기간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2차 시험을 앞둔 시기보다도 이 시기에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시 공부는 쌓이기 때문에 학습이 중단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합격뿐만 아니라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하신다면 고시 공부를 쉬는 기간(예: 1차탈 확인 후 장기 여행, 복학 후 고시공부 소홀히 하기)을 최대한 짧게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3. 스터디에 대하여

스터디는 자칫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목이 스터디가 필요한 과목인지, 자신의 성향이 스터디에 맞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들어가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히나 초시생분들의 경우는 무턱대고 스터디를 구하기보다 압축적인 암기를 통해 답안 작성을 위한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정도 암기가 되었다면 해당 과목이 스터디에 적합한 과목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학, 재정학의 경우 다양한 답안이 나오기 어렵고, 사실상 정답이 맞는다면 일정 점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스터디에 참여하기보다 다양한 문제집을 반복 학습하여 본인의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행정법, 행정학과 같은 논술형 과목의 스터디를 참여합니다. 다만, 저는 행정법 역시 답안 작성 틀이 고정되어 있고, 답안에 논리구조를 제시하는 것 역시 암기가 배경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 별도의 스터디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학은 목차, 사례, 서술방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수험생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답안작성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로의 답안을 비교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스터디에서 읽어본 모든 사례, 내용들 중 가장 좋은 것을 시험장에서 현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4. 수험생활은 되어가는 과정

여러분은 수험생활 중 수많은 최고 답안을 참고하고, 때로는 그것을 보며 이런 답안을 완성하는 날이 올지 자기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처음 고시촌에 가고 1년간은 기본적인 것들도 암기하지 못한 채 백지 답안만 제출하곤 했고, 그 당시의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답안을 읽고, 암기를 해도 변화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험생활을 돌이켜보면 답안을 쓰는 실력은 계단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매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기는 제자리걸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더라도 공부의 결과는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변화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의 공부를 덩덤하게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 어느 날은 자신도 놀랄만한 훌륭한 답안을 완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